

이덕일의 '역사의 창'



청나라 왕실에서 피서 산장을 세운 뜻은

동서남북의 사방(四方)과 중양을 합쳐 오방(五方)이라고 하는데, 그중 남방을 관장하는 염제(炎帝)는 여름과 불도 관장한다. 염제는 적제(赤帝), 화제(火帝)라고도 하는데, 간지(干支)로는 십간(十干) 중에 병(丙)과 정(丁)이 더운 날에 해당한다. 조선 초기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권근(權近, 1352~1409)의 시중에 '괴롭게 더운 날에 가다'란 뜻의 '고열행'(苦熱行)이란 시가 있다. 그해 여름도 어지간히 더웠던지 '음도 양도 숲이 되고 땅과 하늘이 화로가 되었네'로 시작해서, '축융(祝融:여름의 신)이 해를 끼고 하늘을 날아가니/ 삼족오(三足烏:태양 속에 사는 세 발 가진 새)가 목말라 죽을까 봐 두려워하네'라고까지 읊었다.

한치윤(韓致倫)은 '해동역사'에서 당나라 재상 이덕유(李德裕)의 피서 방법을 전했다. 한여름 날 동료들이 이덕유의 작은 서재로 들어가니 가을날 같은 서늘한 바람이 불었는데 저녁 무렵 밖에 나오니 여전히 불타는 듯한 더위였다. 어떤 호사자(好事者)가 그 비결을 알아봤

는데, 그날 쇠로 만든 물동이의 물 위에 백룡 가죽(白龍皮)을 두었더니 찬바람이 일었다는 것이다. 이 백룡 가죽은 신라의 승려가 전해 주었는데 바닷속에서 구한 물건이라 했다. 당나라 강병(康平)이 지은 '극담록 이상국담'(劇談錄 李相國宅)에는 이 일화의 작은 서재가 사실은 별장인 평천장(平泉莊)이고, 쇠로 만든 물동이 가 아니라 황금으로 만든 물동이라고 달리 전하고 있다. 이 고사 이후 이덕유의 평천장은 호화로운 피서 별장을 뒀다.

염제(炎帝)가 기승을 부리던 천자(天子)도 혁혁대기 마련이라 왕실에서도 피서 별장을 만들었다. 수 문제(文帝)는 개황(開皇) 13년(593) 수도인 장안(長安:서안)에서 서북쪽으로 320리 떨어진 인유현(麟游縣)에 피서 별궁인 인수궁(人壽宮)을 지었다. 인수궁은 당 태종이 대대적으로 개수해서 구성궁(九成宮)이라고 했는데, 구중궁궐이란 뜻이었다. 당 고종 때 이를 만년궁(萬年宮)으로 개명해 왕조가 만년이 가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다.

왕조의 피서 별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청나라 왕실에서 세운 피서산장(避暑山莊)이다. 청 왕실의 피서산장은 지금의 승덕(承德)인 열하(熱河)에 세웠다. 강희(康熙) 42년(1703)에 시작해서 옹정(雍正)을 거쳐 건륭(乾隆) 57년(1792)까지 무려 89년에 걸쳐 지었다. 인공 호수를 만들고 호수 안의 섬을 비롯해 각종 절경을 만들었는데, 강희제가 36경(景)이라고 이름 지었고, 건륭제가 또 36경을 만들어 모두 72경이라 불리는 명승을 만들었다. 박지원은 정조 4년(1780) 건륭제의 칠순연에 참석하러 가는 중형 박명원을 따라 열하에 갔다. 박명원은 영조의 딸인 화평옹주의 남편으로 금성위(錦城尉)였다. 이때의 기행문인 '열하일기'의 '황교문답'(黃敎問答)에서 박지원은 "황제는 해마다 만리장성 밖 구벽한 열하에 주필하는데 천자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거친 벽지에 와서 거처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필자가 가 봤던 한 여름의 승덕은 무더운 곳이라서 피서지는로 적합하지 않았다. 박지원은 황제가 해마

다 열하에 오는 이유를, '몽고가 강했던 것을 알 수 있겠다'라고 해 몽고의 흥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순조 3년(1803) 동지사의 일행으로 열하에 다녀왔던 한 선비가 남긴 '계산기정'에도 "황제가 한여름이면 열하에 머물면서 피서산장이라 일컬으나, 그 실은 스스로 방수(防守)하는 것"이라고 간파하고 있다. 피서 산장이 있는 열하는 고대부터 중원의 한(漢)족과 만주를 포괄하는 동북방의 이족(夷族)을 자연적으로 가르는 연산(燕山) 산맥 자락에 있다. 몽골의 흥기만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원의 정치를 잘못하면 다시 북방으로 쫓겨 올 수 있다는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황제들이 매년 열하에 간 것이었다. 한 여름의 피서지까지도 왕조의 보위를 생각했던 만주족들이었기에 금나라에 이어 청나라까지 두 번이나 거대한 중원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다.

〈한기람역사문화연구소장〉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료칼럼



김경중  
조선대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

환자와 함께 질병을 치료하는 '다학제 진료'

안적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인지 등에 대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학제 진료의 가장 큰 장점은 환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표준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분야별로 여러 치료에 대한 최신 치료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장암에서도 소화기내과 의사는 내시경적 치료, 외과 의사는 수술적 치료, 종양내과 의사는 항암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이 있다. 이를 통해 가장 적절한 암 치료 방법을 찾아본 후, 다학제에 참가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최신 지견을 각 분야에서 제시하고, 공개 토의를 거쳐 환자에게 적합한 최신의 표준 치료를 결정해 환자가 건강을 되찾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소통하는 진료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대안 치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준 치료법이 환자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은 임상에서 흔히 발생한다. 예를 들어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이지만, 고령이나 동반 질환 등의 문제로 수술이 어렵거나 환자가 수술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

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충분히 토의한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진료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4~5명의 전문가의 진료를 받을 경우 보통 수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다학제 진료는 한 번의 진료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다학제 진료를 통해 환자는 고통은 물론 물질·시간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더불어 의료진은 각 진료 전문의 의견을 종합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단과 수술법의 정보 교류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가장 큰 이점은 다학제 진료의 의사와 환자의 거리감을 좁혀 치료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는 것이다.

2년 전에 이세돌 프로 기사와 인공지능인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세계적인 뉴스가 된 적이 있다. 이런 인공지능의 르세에서도 몇 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암환자 진료에 인공지능인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도입·사용되고 있다. 왓슨 포 온콜로지는 지금까지의 많

은 임상 또는 기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분석·종합해 치료와 관련된 약물의 반응율과 생존율, 부작용 등을 자세히 제공해 암 치료에서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항암제라는 지, 항암제 조합을 추천한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률이 높은 대장암, 위암, 유방암 등을 포함한 12개 암종에 대한 전문 치료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한국인에 맞는 암 치료법을 찾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학제 진료와 인공지능이 손잡고 함께 암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면, 아마도 이세돌 같은 프로기사들과 알파고와 한 팀이 돼 바둑을 둔다는 의미와 같다. 가히 천하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 한 치 실수도 용납 않는 완벽한 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대병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 지역에서 가장 활성화된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1년 전부터 왓슨 포 온콜로지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은 물론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 땅에 정치인 원로가 없다"

기고



양홍  
목사·현대문예작가회장

필자는 4·27 '평화의 집(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연이은 북측 통일각 회동, 6·14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더욱 발전하여 종전 선언, 평화 통일까지 나아갈게 되었고, 이후 목사가 되어 더욱 선교에 매진하게 되었다. 나름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작은 민족주의자로 자처하며 상당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특히 은사이신 문익환 목사님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었다.

문 목사님과 함께 후광(고 김대중 대통령 의 호) 선생의 사저에 들렀던 이날,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통일에 대한 방법론을 접하게 되었다. 가슴이 뜨거웠고 눈이 번쩍 뜨였다.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의 3단계 통일론이었다. 얼마나 내용과 논리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었던가. 그 날부터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한 번도, 단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다.

필자는 역사를 선(線)으로 본다. 세상 일들을 긴 선 위에 올려 보면, 이 땅에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분의 논리가 정확했음을 실감한다. 요즘 요동치고 있는 남·북·미 세계사를 보고 있다면, 역사란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역사를 선(線)으로 본다. 세상 일들을 긴 선 위에 올려 보면, 이 땅에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분의 논리가 정확했음을 실감한다. 요즘 요동치고 있는 남·북·미 세계사를 보고 있다면, 역사란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후광 선생님은 자신의 말에는 책임을

지시는 분, 한 마디 한 마디를 신중하고 사려 깊게 그리고 예리하게 판단하시는 분, 원칙과 소신을 버리지 않으신 분, 안보 통일, 경제, 사회 등 제반 문제에 대해 냉정하고 깊은 철학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 원칙과 소신의 일관성이 분명해 되, 주어진 상황과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신 분이셨다.

나는 지도자의 덕목을 판단력, 열정,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야말로 그 배심, 즉 용기와 결단력, 열정과 화해, 따뜻한 가슴을 지닌 포용력과 지혜, 판단력이 분명한 지도자이셨다. 다섯 번의 죽음의 고비, 4년 반의 연금 생활, 6년 동안의 감옥 생활, 3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오로지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용기로 이겨내신 대(大) 정치인이자 원로이셨다. 지금 이 땅에 요동치고 있는 세계사의 물결을 접하면서 후광께서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괜한 님두리를 적어 본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죽음까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불굴의 신념과 용기를 가진 정치 원로가 없다. 그럼에도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이라는 논리 위에 구체적 실천을 어떻게든 해보려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뜨겁게 박수와 함께 '와!' 함성을 보낸다.

社說

영호남 교류 이젠 실질적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민선 7기 들어 영호남 교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달빛고속도로)에 이어 양 지역을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용역이 착수되고, 영호남 4개 시도가 남해안을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최근 대구시와 공동으로 3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대통령 공약 사업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게 맡겼다. 광주·대구 간 고속화 철도를 건설해 양 지역을 한 시간 생활권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면 철도망이 열악한 영호남 내륙 도시 간 물류가 원활해져 남북 경제권 형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부산시·경남도에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영호남 4개 시도가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남해안을 세계적 명소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구축과 남해안 해안관광도로 및 고속철도 조기 개통, 남해안 광역경제권 구축 등이 세부 협력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호남을 연결하는 남해안은 수려한 자연 환경과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 등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녔지만 역대 정부마다 장밋빛 개발 청사진만 남발한 채 허구호에 그쳤다. 지난 2010년에는 24조 원을 투입해 동북아의 물류·관광 허브로 집적 개발하는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진척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영호남 상생 협력이 의욕적으로 나서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영호남 교류가 지자체를 넘어 문화·스포츠 등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지만 경제 활성화나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지자체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초광역 협력이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배출 가스 봐주기식 검사 환경 오염 부추긴다

광주·전남·전북 지역 민간자동차검사소 12곳이 부정 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의 일제 단속에 적발됐다. 대부분 봐주기식 검사를 했거나 자동차 불법 튜닝, 배출 가스 기준 초과 등을 적발해 놓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 가스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44곳에서 위반 사항 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경우 업소 29곳을 점검한 결과 40%가 넘는 12곳(광주 1곳·전남 4곳·전북 7곳)이 적발됐다. 이는 충남 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적발률(41.4%)이다.

이들 업소의 위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다양하다. 광주 지역 업체의 경우 검사기기 관리 미흡에 따른 자동차 배출 가스 수치 부정확, 검사 과정 영상 촬영 부정적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 2개 업체

도 자동차 배출 가스 수치 부정이 있었고 또 다른 2개 업체는 일부 검사를 생략한 일제 단속에 적발됐다. 위반 업체를 단속해야 할 검사소가 부정행위를 적발하고도 눈감아 준 것이다.

민간검사소의 부정 검사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일부 검사소는 검사원 교육과 시설 개선이 미흡한 탓에 자동차 배출 가스의 부적합 여부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 가스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데 미연에 대비하지 않으면 보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자동차 검사소는 자발적으로 검사원 교육 강화와 함께 시설 보완에 나서고 당국은 수시로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 검사 제발 방안을 위한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높고 웅장한 인공 구조물은 주로 권위의 상징이었다. 베르사유 궁전으로 대표되는 봉건 시대 유럽의 궁전, 바티칸의 산페트로 대성당 등 중세 시대 성당 등이 대표적이다.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이들 구조물들은 후세에 와서야 일반에게 공개되고, 관광 자원으로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에펠탑은 높은 인공구조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 기념 '파리 만국박람회(EXPO)' 당시 높이 약 320m의 격자형 철탑으로 세워졌다. 이 탑을 세운 이가 바로 프랑스 건축가인

타워(468m, 1994) 등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도시 한복판에 들어섰다. 타워는 물론 건축물의 높이도 이미 800m를 넘어섰다. 서울의 롯데월드 타워(554.5m)가 5대 초고층 건축물에 포함됐고, 송도 인천 타워, 부산롯데타운 등 지방 대도시도 초고층 건축물 신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05년 광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518m짜리 탑을 세우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얼마 안 돼,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그랬던 518m 타워가 13년의 세월이 흘러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거론되고, 민선 7

기 혁신위원회가 검토 과제로 제안하면서 다시 화제가 올랐다. 누구나 관심을 갖고 찾는 만한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 광주에도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많다. 다만 그 의미가 빈약하고 공감을 얻기 어렵다면 좀 더 발전되거나 보완된 방안을 가지고 논의돼야 할 것이다. 어디를 가나 회색빛 고층 아파트만 들어서고 있는 광주라는 도시에는 거대한 인공 구조물보다 녹지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격조도 앞선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타워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자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